



선지식을 찾아서

월파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문수사 주지)

월파 스님은 1952년 통도사 김구하 스님을 은사로 15세에 출가하여 사미계를 수지, 1968년 율학사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60년 통도사 승가대학(강원) 졸업, 통도사 보광선원에서 월하 스님을 표창사에서는 효봉 스님을 모시고 공부한 것을 비롯하여 30만여 성안, 1990년 통도사 총무국장, 1992년 통도사 부주지, 1996년 통도사 주지 역임. 현재는 문수사 주지이며, 2007년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 위원에 추대되었다.

“바다같이, 소나무같이 변함없는 신심 가져야”

문수사로 가는 길은 아득하였다. 가파른 산등성이를 몇 굽이나 돌았는지 모르겠다. 산을 오르면서 자장 울사가 이곳에 토굴을 짓고 수행에 전념한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았다. 산 정상이 가까워지자, 하늘을 날고 있는 까마귀 떼들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 까마귀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뒤덮은 인도의 영취산이 생각났다.

월파 스님(선진 스님)은 소하고 때 어떤 노인에게 손금을 보니 앞으로 절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였다. 통도사에서 15세에 동진 출가하여 오랜 세월동안 월파 큰스님을 모시고 공부하였다. 월파 스님이라고 하면 통도사를 떠올릴 만큼 통도사에서 잔뼈가 굵었고 통도사를 위해 많은 일을 하였다.

“사람들은 여섯 부처님을 모시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눈이 곧 부처님입니다. 눈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은 다 가지려고 합니다. 여름이면 시원한 옷을 입으려고하고, 겨울이면 따뜻한 옷을 입으려고합니다. 이것은 다 눈이 들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람은 욕심에서 병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원수가 생깁니다. 욕심을 끊으면 광명여래부처님이 됩니다. 둘째는 귀가 부처님입니다.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좋고 나쁜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귀가 부리는 욕심을 버리면 성문여래부처님이 됩니다. 셋째는 코가 부처님입니다. 좋은 향기 맡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 나쁜 향기를 맡으면 짜증이 나고, 음식 냄새를 맡으면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에 의해 좌우되는 욕심을 버리면 향적여래부처님이 됩니다. 넷째는 입이 또 부처님입니다. 입이 걱정과 시비와 탐심과 원수를 만듭니다. 입이 욕심을 버리면 법희여래부처님이 됩니다. 다섯째는 몸이 또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더우면 시원한 옷을 입어야 하고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하고 우리는 몸의 시중을 잘 들어줍니다. 몸이 부리는 욕심을 버리면 부동광여래부처님이 됩니다. 여섯째는 마음이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마음이 들어서 온갖 파장을 만들어 냅니다. 때로는 우울증까지도 만듭니다. 헤어질 수 없는 감정과 번뇌를 만드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비로자나부처님이 됩니다.”

인비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를 여섯 도적이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잘 쓰면 여섯 부처가 된다고 하니 이 한 몸이 때로는 도적의 소굴이 되는가 하면 때로는 향내를 그득한 법당이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어느 절 부처님이 영험이 있다 하면 그쪽으로 달려가고 어디 기록들이 소원 성취해 준다면서 우르르 몰려다니기 일쑤다. 이런 현상에 대해 월파 스님은 자신이 여섯 부처님을 모시고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스스로가 마음을 잘 쓰고 진리를 알 때 부처가 보이는 것이지, 자신이 어려서게 산다면 부처님이 옆에 있어도 성인이 옆에 있어도 알 수가 없단다.

“자신을 관하다 보면 해안이 밝혀져 저

절로 인과법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천 번을 죽었다가 천 번을 만나는 인연으로 부모 자식간이 되고, 구백 번을 죽었다가 구백 번을 만나는 것으로 형제가 되고 팔백 번을 죽었다가 팔백 번을 만나야 부부간이 됩니다. 이런 깊은 인연이 맺혀서 부부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는데 왜 욕심으로 시비하고 욕심으로 서로 헤어지고 욕심으로 원수를 맺습니까?”



“수행자가 올바른 길 걷는 것이 최상의 포교”

문수산 오가는 등산객에 따뜻한 식사 공양도

모두다 전생에 인연이 있어 만난 사람들 아니 부처님으로 모셔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월파 스님은 절에 오는 것도 좋지만 집에 있는 가족을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반찬을 만들 때도 정성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가족들의 식사를 정성들여 준비하는 것도 불공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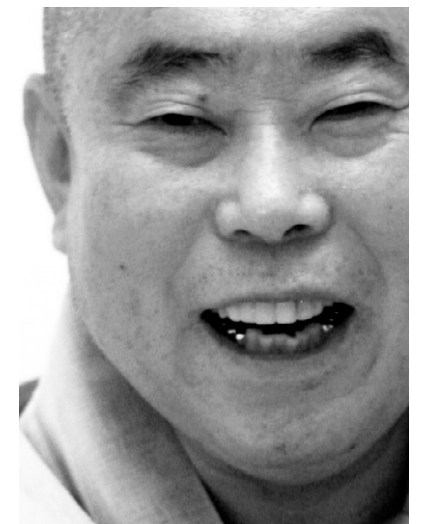
월파 스님은 씬 없이 정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집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서쪽을 향해 세 번 절하고 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인가’를 화두로 삼아서 좌선을 3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야심경>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는 저녁에도 ‘하루를 잘 보냈는지, 사 람다운 짓은 했는지’ 반성을 하고 잘못했다면 참회를 해야 합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기도이고 수행인 것이지 이것을 다른 곳에서 따로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망상이고 번뇌입니다.”

자신이 그날 일과를 잘 마치고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냈다면 그것도 진실로 기도를 잘한 것이라는 월파 스님의 법문은 가슴을 파고들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작은 선행이라도 하는 것이 복 짓는 것이요 기도 하는 것이 된다고 하니 기도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야 할 것 같다. 월파 스님의 법문은 거침없이 이어졌다. 절은 ‘나쁜 길을

가지 말고 나쁜 일 하지 말고 사회에 해를 끼치지 말라’고 가르치는 교육장이기도 하다. 절에서 배운 것을 가정에서 사회에서 실천해야 하며, 법당이 아닌 가정과 사회가 복 짓는 도량이 되어야 한다. <유마경>의 한 구절을 빌린다면 ‘직심(直心)이 도량이요 보리심이 도량이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그곳이 바로 도량이 되는 것’이다.

수행자로서 계율을 어기는 모습이라든가 수행자답지 못한 모습을 신도들에게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월파 스님의 철칙중 하나이다. 수행자가 올바른 길을 걷는 것만큼 좋은 포교는 없단다. 신도를 스스로 일어서 기도와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욱더 신심을 내게끔 만드는 것도 스님의 역할이라 생각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사시예불에 참석하고 있다. 사시예불에 오면 언제라도 주지스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람들의 기대감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서 월파 스님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월파 스님은 그 높은 산꼭대기까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내었고, 토굴에 불완전한 법당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증축하였다. 겉모습만 변한 것이 아니라 문수산을 오르내리는 등산객



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월파 스님은 공양시간이면 사람들에게 꼭 공양 들고 가라는 따뜻한 말을 잊지 않는다.

“세상의 온갖 더러운 물들이 바다로 흘러들어오는데도 바닷물은 항상 푸르고 깨끗하듯이, 깊은 산의 수백 년 된 소나무가 조금도 변함없이 싫어함 없이 당당하게 산을 지키고 있듯이 불자라면 부처님을 향한 신심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월파 스님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평생을 부처님 공양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 온 스님의 일평생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저울과도 같은 회색빛 그 옷이 참으로 존엄하고 거룩해 보인다.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얗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썩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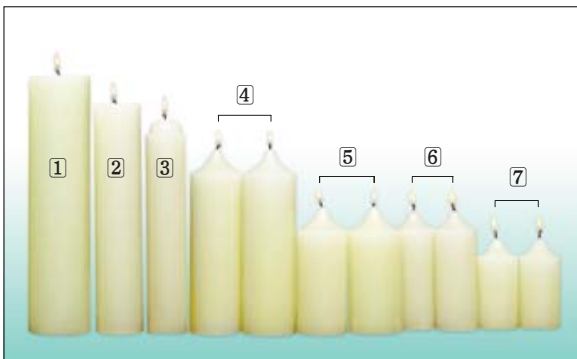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 **밀납양초(蜜蠟洋燭)**
- ①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 ②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 ③ 밀납초원기둥 7.4φ × 30Cm
 - ④ 밀납초돈타레 5.6φ × 27Cm
 - ⑤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 ⑥ 밀납초 1호 금강경 5.9φ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 ⑦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 ⑧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썩향 양초**
- ① 원기둥 7.4φCm × 29Cm
 - ② 돈타레 5.6φCm × 27Cm
 - ③ 밀 대 4.7φCm × 25Cm
 - ④ 1호 5.9φCm × 20Cm
 - ⑤ 2호 5.9φCm × 14Cm
 - ⑥ 3호 4.7φCm × 13Cm
 - ⑦ 4호 4.7φ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아광 호랑이(산신)** 70φ × 35cm



■ **아광 용초** 70φ × 35cm

■ **원기둥 마패 동신불 마패** 7.4φ × 30Cm

4.7φ ×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창 양초.net